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지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台洛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제 271 호

(우: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602호 (내수동 세종로 대우빌딩 북합동)

www.cheongjuhan.net

Tel : 720-6370~1 Fax : 720-9215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익산쌍릉을 백제무왕과 왕비릉이라 우기지 말라!



한태락
중앙종친회장

익산쌍릉은 마한대조 무강왕과 왕비릉으로 청주한씨 선조 묘다. 특히 대왕릉은 무강왕릉으로 청주한씨 원시조여서 문중에서 대대로 매년 음력 3월 보름날 쌍릉에서 시조제례를 봉행해 왔다. 그런데 근년에 익산시 석왕동 6-12번지 소재 '사적 제87호' 쌍릉 피장자를 두고 익산시와 청주한씨 문중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익산쌍릉에 대한 역사적 문헌으로 고려사절요 24권 충숙왕 16년 3월에 "금마군에 마한조상 호강왕의 릉(대왕릉)이 파헤쳐졌다"는 기록과 함께 왕릉 주인은 (청주한씨 조상 묘인) 무강왕이 틀림없는 정사(正史)이라고 기록했고, 고려사에서도 쌍릉은 무강왕과 그의 비릉이다 라고 기록했으며, 무강왕 세보에도 북원(태원)선우(太原鮮于)·상당(청주)한(淸州韓)·덕양(행주)기(幸州奇)氏 시조가 분명하다고 기록했다.

또한 안정복의 저서「동사강목」에는 기준원년부터 마한 정통기간에 대해 기록이 가능한 연대를 상세히 모두 기록됐고, 이 외에도 삼국사기, 고려사, 후한서, 권람의 응제시주, 다산 정약용 아방강역고 등 무수한 사서에도 금마는 기준(무강왕)이 남천한 곳이며, 쌍

릉 피장자로 무강왕과 그의 비릉이 분명하다는 역사기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리함에도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등에서는 역사기록을 무시하고 역사에 없는 '무왕 익산 천도설'과 '대왕릉이 무왕릉'이라며 서동설화를 바탕으로 무지막지하게 역사기록이 왜곡 조작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사는 한성백제와 웅진(공주)백제 및 사비(부여)백제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2000년대 이후 수많은 학술발표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어느 역사문헌에도 기록이 없는 익산을 백제 무왕도 읍지이며 쌍릉 대왕릉을 무왕릉, 소왕릉을 선화공주 릉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대왕릉 발굴에 앞서 "무왕을 기리고 조사 발굴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진행한다."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왕릉 발굴도 전에 대왕릉을 무왕릉으로 기정사실화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역사 짜 맞추기로 익산시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역사 짜 맞추기라는 언론 보도(2005. 11.)를 보더라도 심각한 역사왜곡이요, 조작이 아닐 수 없다. 역사서에 전혀 기록이 없는 익산 왕궁성을 무왕 천도지로, 대왕릉을 무왕릉으로 짜 맞추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사서에 기록된 청주한씨 조상 묘인 대왕릉을 역사조작에 의해 강탈 하려는 것이다.

전해오는 야사를 기록한 삼국유사 서동설화를 바탕으로 무수한 역사기

록을 무시한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를 역사적 사실화하여 쌍릉 피장자로 둔갑시키는 역사왜곡이 얼마나 엄중한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도 무왕이 사비와 웅진을 오가거나 활동한 내용만 나올 뿐 익산 왕궁 등지에서 활동한 기록이 전무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 당시 고구려·백제·신라 등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사서 어디에도 무왕 익산 천도설이나 대왕릉 피장자가 무왕이라는 기록이 없다. 심지어 2009년 발견된 미륵사지 서탑 사리장엄에서도 백제 사택왕후만 나왔을 뿐 선화공주는 언급조차 없던 사실만 봐도 익산시 등이 얼마나 무리한 역사왜곡을 저질러 왔는지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백제무왕 '익산천도'가 역사적 사실인지를 근거를 대고, 삼국유사 서동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서동축제가 역사적 기록과 합치하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국이 고구려나 발해사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을 역사왜곡이라 비난하면서 내부에서 백제사 왜곡이 말이 되는가? "익산은 설화도시인가, 역사도시인가?"라는 반문이 익산 외 지역에서 울려 퍼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정통 사학계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청주한씨와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한태락회장)

의구이사, 무강왕수호 범대책위원장 선임



중앙종친회 (회장 태락)는 지난 8월 집행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중앙종친회장이 겸임해 오던 무

강왕수호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의구이사(사진)를 새로이 선임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과 인력도 재정비하기로 결의하였다.

의구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부족하나마 중앙종친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익산시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무강왕릉 수호를 위해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중앙회 임원 및 전국의 청주한씨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하였다.

무강왕수호대책위원회 성금 계좌
국민은행 624201-04-487233
예금주 무강왕수호 범대책위원회

올 임인년 시조 태위 위양공부군 세향봉행일은 양력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시조 태위 위양공부군의 임인년 세향봉행일은 10월 25일(음력 10월 1일) 화요일로 금년에는 실로 3년 만에 집합제한 규제 없이 전국의 일가들이 함께 봉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조부군의 음덕을 기리고, 100만 청주한문의 송조돈목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종파문중과 시도 회장단 및 임원 등 여러 어른들께서는 오는 10월 25일에 봉행되는 시조부군 세향에 청장년·청소년을 포함 한문의 후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함께 대동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혜왕후 518주기 기신제 봉행

임인년 9월 27일 화요일, 서오릉 경릉에서

덕종대왕비(德宗大王妃)인 청주한씨 소혜왕후(昭惠王后·1437년 10월 7일(음력 9월 8일) ~ 1504년 5월 11일(음력 4월 27일)·14世)의 제518주기 및 덕종대왕 제565주기 기신제 제향이 2022년 9월 27일(화, 음 9월 2일) 오전 11:30 경기도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西五陵)내 경릉(敬陵)에서 문화재청 주최, (사)전주 이씨대동종약원 경릉봉향회·월산대군과종회 주관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청주한씨 서원군파문중에서는 길수회장, 만교회장, 도수회장 등 3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하였으며 도수양해공과 회장이 아헌관으로 제례를 봉행했다.

인수대비(仁粹大妃)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소혜왕후는 세조(世祖) 때 좌의정을 지낸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諱 確(確)의 따님으로 세조가 대군으로 있을 때 도원군(桃原君)의 신분으로 있던 덕종과 결혼했으며,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으로 즉위하고 도원군이 세자(世子)로 책봉되자 19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2년 뒤 세조 3년 9월에 세자인 덕종이 급환으로 별세하자 소생인 아들 성종(成宗)이 왕위에 올랐다. 이후 성종 2년 부군이 덕종대왕(德宗大王)으로 추존되면서 소혜왕후도 인수대비로 진봉(進封)되었으며 시호는 인수자숙휘숙명의소혜왕후(仁粹慈淑



좌측 두 번째 길수회장, 세 번째 만교회장

徽肅明懿昭惠王后)이다.

당시 여성으로서 드물게 한문과 유교경전에 능통하였으며 불교에 귀의함이 두터워 범(梵) 한(漢) 국(國) 삼자체(三字體)의 불서(佛書)와 열녀(烈女)·여교(女교)·명감(名感)·소학(小學) 등에서 발췌하여 엮어내훈(內訓)을 편찬하였다. 내훈은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의 수신서이자 당시 여성교육의 기본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능은 앞에서 보았을 때 왕은 왼쪽, 왕비는 오른쪽으로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와는 반대로 조성되어있는 경릉은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의 형태로 사적 제198호, 2009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문정공(14世.諱 繼禧)부군 불천위 기신제 봉행

문정공과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성익회장 선임

문정공과종회(회장 석구)는 지난 9월 14일(음 8월 19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율동 문정사 영모재(永慕齋)에서 석구회장을 비롯해 후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공(휘 계희)부군 540주기 기신제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조현관에는 석구회장, 아헌관에는 상렬일가(문양공파), 종현관에는 기선감사, 축관은 동훈일가 각각 분방되어 만구이사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제례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안)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가결 승인한 후 임원 개선을 통해 성익前총무이사(사진)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동춘일가(공간공계)와 재철일가(영흥공계)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신임 성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석구회장과 임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승조돈



신임 성익회장

목하고 종중발전을 위해 직분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종원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4지와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지파별 3인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총무에는 택영일가를 선임하였다.

문정공부군은 함길도 관찰출척사를 지낸 청산군(淸 海)의 셋째 아들이고 조선 개국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문간공(휘 상경)의 손자이다. 1423년(세종 5년)에 태어나서 1482년(성종 13년) 졸하였으며 대광보국 승록대부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당세 제일의 학식과 단정한 성품으로 주위로 부터 추앙되어 존중하여감을 받으셨다.

(문정공파종회 신임회장 성익)



문정공 기신제 봉행

운영회비(7~9월)		단위:원
이름	금 액	
추태 고문(전 중앙회장)	1,000,000	
덕규 부회장(양절공파회장)	1,000,000	
상량 부회장(참판공파회장)	1,000,000	
철호 부회장(삼재관리위원장)	1,000,000	
현구 부회장(절재공파회장)	1,000,000	
근우 부회장(세마공노산종중회장)	500,000	
도수 부회장(양해공파회장)	500,000	
동경 부회장(부산 북구)	500,000	
만준 부회장(경남도회장)	500,000	
천식 부회장(인천시회장)	500,000	
기호 상임고문(인천 남동구)	200,000	
관우 자문위원(부산 해운대구)	200,000	
성교 자문위원(대구 북구)	200,000	
복연 겸임이사(충북 청주시)	200,000	
봉 겸임이사(전북 전주시)	200,000	
상옥 겸임이사(전북 고창군)	200,000	
상웅 겸임이사(서울 강남구)	200,000	
인숙 겸임이사(경기 양주시)	200,000	
기형 겸임이사(경기 안산시)	100,000	
병량 겸임이사(경기 의정부시)	100,000	
세동 겸임이사(대전 서구)	100,000	
우선 겸임이사(서울 서초구)	100,000	
상기 운영위원(전남 영광군)	100,000	
재림 운영위원(제주 제주시)	100,000	
재운 운영위원(광주 북구)	100,000	
재환 운영위원(광주 광산구)	100,000	
합 계	9,900,000	

일반찬조헌성금(7~9월)		단위:원
이름	금 액	
태락 중앙회장	1,000,000	
여명공중중(회장 천동)	1,000,000	
삼해(대구 동구)	500,000	
동훈 운영위원(경기 파주시)	200,000	
수창(경기 양평군)	100,000	
합 계	2,800,000	

개인정보비(7~9월)		단위:원
이름	금 액	
신홍(전남 목포시)	300,000	
광석(전남 구례군)	100,000	
동식(경북 경주시)	100,000	
원삼(충남 계룡시)	100,000	
경수(서울 노원구)	50,000	
추태 고문(전 중앙회장)	50,000	
국현(서울 강북구)	50,000	
기석(경기 남양주시)	50,000	
대봉(울산 중구)	50,000	
상갑(서울 강동구)	50,000	
상길(울산 울주군)	50,000	
상돈(충남 청양군)	50,000	
상목(경북 구미시)	50,000	
상옥 겸임이사(전북 고창군)	50,000	
성수(서울 광진구)	50,000	
우선 겸임이사(서울 서초구)	50,000	
인수(서울 강북구)	50,000	
정희(서울 금천구)	50,000	
종업 부회장(경기 남양주시)	50,000	
종길(광주 서구)	50,000	
신재순	50,000	
학수(서울 동작구)	40,000	

기석(서울 노원구)	30,000
덕연(전남 나주시)	30,000
상남(서울 구로구)	30,000
상봉(서울 종로구)	30,000
아름(서울 도봉구)	30,000
영성(경기 양평군)	30,000
영섭(전남 나주시)	30,000
영태	30,000
일웅(경기 남양주시)	30,000
장석(충남 당진시)	30,000
조남(서울 은평구)	30,000
창운(부산 사하구)	30,000
태진(경북 경주시)	30,000
흥덕(서울 도봉구)	30,000
기호 상임고문(인천 남동구)	20,000
규범(경기 고양시)	20,000
기엽(경남 사천시)	20,000
대화(경북 경주시)	20,000
덕수(서울 금천구)	20,000
동수(서울)	20,000
동호(서울 성북구)	20,000
두현(대구 북구)	20,000
복원(서울 영등포구)	20,000
상현(경기 시흥시)	20,000
상현(경기 시흥시)	20,000
성명,주소미상	20,000
승언(경기 용인시)	20,000
양수(경남 창원시)	20,000
용희(충남 예산군)	20,000
유환(충북 청주시)	20,000
인우(충남 당진시)	20,000
재연(서울 성동구)	20,000
정석(서울 금천구)	20,000
준석(경남 하동군)	20,000
청광(서울 금천구)	20,000
태문(경기 수원시)	20,000

호석(경기 고양시)	20,000
기원(경기 성남시)	4,000
합 계	2,374,000

단체중보비(7~9월)		단위:원
이름	금 액	
감사공파안산종중	500,000	
대구경북종친회	300,000	
삼재관리위원회	300,000	
세마공노산종중	300,000	
낙안공중중(복성)	200,000	
송탄종친회(수동)	100,000	
합 계	1,700,000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부 안내

존경하는 임원 및 일가여러분!
코로나19와 3고 현상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만 송구한 마음으로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입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및 일가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운영회비와 종보구독료는 청주한문 100만 종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중앙종친회의 운영 재원입니다. 임원 및 일가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계좌송금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종보에 첨부된 지로용지 이용
(입금자 성명 및 주소 등 기재)
▲ 입금 후 중앙종친회로 연락 바랍니다
(02) 720-6370/1)

청주한씨중앙종친회

2022 만해축전 ‘한국인 만해, 세계인 한용운’ 주제로 개최

청주한문의 위대한 선각자, 한국 근대사의 어둠을 밝힌 선승이자 위대한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 1879~1944)선사를 기리는 2022 만해축전이 지난 8월 12일 만해대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만해마을 및 인제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인제군, 동국대학교,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서 후원, 올해 24회째를 맞는 만해축전은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인 만해(萬海)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이다.

만해축전의 백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순국한 만해의 생명·평화·겨레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997년 제정해 이어오고 있는 만해대상은 ‘평화’ ‘실천’ ‘문



제26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관계자, 수상자 등 기념촬영

예’ 세 부문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거둔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저명한 인사들에게 시상되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올해 26회 평화부문 대상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우쓰미 아이코 명예교수에게 돌아갔으며 실천대상은 사단법인 다나 대표 탄경스님과 서울대 이상묵 교수가 받았다고 문예대상은

유자호 시인과 이민진 소설가가 공동 수상했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우쓰미 아이코 명예교수는 “이번 수상은 그간 제가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를 끈질기게 연구해온 점을 높게 평가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은 일본 전후 보상운동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만해축전 명예대회장인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만해스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은 ‘한국의 노벨평화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권위가 높은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경을 가리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인 만해대상 수상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 만해축전’은 만해대상 시상식을 중심으로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선생의 사상과 문학 혼을 기리기 위한 행사들로 학술세미나, 서예대전, 청소년백일장, 야구대회, 청소년캠프, 음악캠프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체육 행사가 10월 30일까지 펼쳐진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는 선사, 시인, 독립운동가로 일생을 조국독립과 겨레사랑으로 일관, 20대 중반에 백담사로 출가 승려가 된 후 한국불교의 개혁과 대중화를 주창한「조선불교 유신론」을 펴내는 한편 시·소설 등의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개혁과 정신개혁을 주도하면서 1926년 88편의 시를 모은 그 유명한 시집「님의 침묵」을 출판, 생명사상·사랑의 철학을 겨레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참여해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나 애석하게도 조국의 광복 1년 전인 1944년 6월 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壽牛莊)에서 광복을 불과 1년 앞두고 세수 66세(법납 40세)로 별세했다. 그가 별세한지 78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그의 자유사상, 평등사상, 민족사상, 평화사상은 여전히 소중한 민족사적 덕목이 되고 있다.

만해 한용운선사 탄신 143주기 추모다례 봉행

8월 29일, 홍성 생가지일원 및 사당에서

지난 8월 29일, 독립운동가이자 승려·민족시인으로 한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만해한용운선사의 탄신 143주년을 맞아 충남 홍성군 결성면 소재 만해 생가지 사당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제27회 만해 추모다례’를 봉행하였다.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이 주관하고 덕숭총림 수덕사와 만해한용운선사 기념사업회, 홍성군, 충남서부보훈지청 후원으로 봉행된 추모다례에는 만해한용운선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웅산스님과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 수덕사 총무국장 정경스님, 이용록 홍성군수,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 구자면 홍성경찰서장, 김남용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해 만해스님을 추모했으며, 국민의례에 이어 유환동 홍성문화원장 인사말, 수덕사 총무국장 정경스님의 행장소개,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 축원, 기관장 추모사, 웅산대종사 법어, 님의 침묵 시낭송,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유환동 홍성문화원장은 인사말에서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에 앞장서시면서 3.1운동 때 민족대표 한분으로 참여하셨고 시인으로 대선사로 업적을 많이 남기셨다”며 “오늘 추모다례를 계기로 만해 선사님의 나라사랑 정신과 문학세계를 깊이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해한용운선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웅



만해 탄신 143주기 추모다례 봉행

산스님은 법어에서 “만해 선사는 일본의 계속되는 억압과 굴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면서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시다가 열반하셨다”며 “오늘 탄신추모다례를 통해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만해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만해추모제는 매년 8월 29일 만해스님 탄신을 기념해 조국독립에 앞장섰던 만해스님의 나라사랑 정신과 문학세계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한용운선사의 사당이 있는 홍성군 결성면에서 추모다례를 봉행하고 있으며, 홍성군은 지난 2007년 만해의 사당이 있는 고향 결성에 만해문학체험관을 개관하고 민족시비공원을 조성했으며 이곳을 통하는 도로주변에는 무궁화 꽃을 빼곡하게 심었다.

한편, 정부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운동에 대해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장학재단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뿌리정보미디어에서 홈페이지 제작 기부

금년도 초에 새로이 발족한 (재)청주한씨장학회(이사장 한태락)가 지난 9월 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되었다. 지정기간은 신규지정으로 2022. 1. 1. ~ 2024. 12. 31.까지이다. 따라서 2022. 1. 1.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 기부자는 관련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 법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장학기금 출연 및 기부 안내〉

· 국민은행 009901-04-171067 · 예금주 (재)청주한씨장학회

공익법인으로서 의무와 이행사항을 충실히 준수함은 물론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일가분들과 관심단체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세무서, 국세청, 기재부의 검토 심의 등 공익법인 지정에 필요한 기본 및 다양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재단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기부해 주신 뿌리정보미디어(대표 한상익)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편집자 주)

제13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성황리에 개최 뿌리공원에서 '효로 통하는 세상 효통 1번가' 라는 주제로



효문화 뿌리축제 참관 기념

「효로 통하는 세상 효통 1번가」라는 주제로 제13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지난 10월 7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뿌리공원에서 전국 성씨문중 자손과 관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축제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문중입장 퍼레이드에는 전국 108개 문중이 각 문중을 상징하는 성씨깃발을 앞세우고 문중별로 상징되는 대표위원의 분장과 특색 있는 전통 복장 등을 갖추고 취타대와 함께 퍼레이드를 펼쳐 조상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많은 볼거리로 축제의 장관을 이룸으로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금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15명이 함께하며 축제 국제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중앙회 태락회장, 선교, 삼랑, 윤동, 만교, 진수, 상락, 동경, 갑수, 격동, 춘희, 성익회장을 비롯하여 대전, 부산, 대구, 인천, 천안 등 지역총회장장과 임원 및 종원 등 전체 70여명이 참석하여 '명문 삼한갑족 청주한씨 뿌리 효문화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앞세워 관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37번째로 입장하였다. 입장식 후 청주한씨 조형물을 함께 둘러본 후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근거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종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명문가문으로서 효문화 실천에도 모범을 보이고 종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문의 긍지를 이어 나가자고 독려했으며 갑수대전회장은 종파문중 및 지역총회별로 빠짐없이 참여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종원분들이 함께하며 화합 교류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하였다.

세계 유일의 성씨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뿌리공원은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 1997년 11월 1일 개장한 가족친화 테마공원이며 도심 속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는 충효(忠孝)의 산 교육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125,000㎡의 면적에 244개의 성씨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성씨문중에서 기증한 족보 등 사료를 전시하고 있는 한국족보박물관은 조상의 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종친간의 단합과 만남의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청주한씨 상징 조형물은 1997년 10월 뿌리공원 개장과 함께 37번 구역에 조성이 되었지만, 오랜 세월의 경과로 노후화 되고 최근 조성된 타 성씨 조형물에 대비하여 규모가 왜소하며 청주한문을 상징하는 조형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디자인과 기록내용, 규모 등을 보완해서 새롭게 개수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일가분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9월에 청주한문의 번영과 승조의 의미를 표상화한 조형물로 높이 3.5m의 최대규격 기준으로 화강석과 오석을 재질로 하여 새롭게 개수하였으며 상단의 청주한씨 표기는 석봉체를 인용하였다. 시조부군의 은덕으로 100만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대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존의 조형물은 시조묘역으로 이전하여 기록유산으로 보존 전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일가

행정 전문성 겸비한 법학자



한기정위원장

지난 9월 16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경제·금융 분야 전문 법학자로 평가받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임명되었다.

한기정 위원장(1964년생)은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공법학 전공)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위원, 보험연구원장 등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으며, 2020년 6월부터 2년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냈고 법무부 검찰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자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선임된 한기정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

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문이며 같은 대학 법대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후배 지간이 된다. 한위원장은 공정위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장을 맡는 법학자 출신이 되었다.

△1964년 출생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케임브리지대 법학 박사 △한림대 법학부 전임강사·조교수 △이화여대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대 금융법센터 센터장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제4대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검찰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시조 태위 위양공부군 세향 공고

집합제한 규제 없이 봉행합니다!

- 일 시** 2022년 10월 25일 (화, 음 10월 1일) 오전 11:00
- 장 소** 시조부군 묘역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길 140-8)
- 의 레** 시조 세향 및 4위단 (2·3·4·5세) 세향 봉행
- 참석범위** 청주한씨 남녀노소 전 종원
- 식전행사** 중앙회장 인사, 내빈 축사 및 격려사

종현님의 건승하심과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임인년 시조부군 세향 봉행일은 오는 10월 25일 (화요일, 음 10월 1일)입니다. 금년에는 실로 3년 만에 집합제한 규제 없이 전국의 일가들이 함께 봉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시조부군의 음덕을 기리고 송조돈목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일가분들의 참여와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집합 제한 해제로 참여인원 예측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 행사준비를 위해 참석하시는 분은 중앙총친회로 10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02-720-6370)

※중앙총친회 사무실 앞에서 당일 08:00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상주고속도로 문의C에서 우회전 후 약 4KM 오시면 시조묘역표석 앞 삼거리 연결)

본 271호 종보는 4면으로 발행되었습니다